

무봉리 순대국 동남고에 장학금 전달

김종복 회장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 될 것" 당부

무봉리 순대국 김종복 회장은 4월19일 동남고등학교(교장 조대행) 학생들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남고 전교생이 참석했으며 장학금 수혜 대상은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모두 15명이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 무봉리 순대국 김종복 회장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종복 회장은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하고 1994년 요식업계에 진출해 전국에 250개의 지점을 개점해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장학금을 지난해에 이어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봉리 순대국 김종복 회장은 4월19일 동남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아름다운가게 포천점이 4월26일 포천고 학부모회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가졌다.

포천고 학부모회 아름다운가게 행사 가져

의류 700여점, 가전 및 잡화류 300여점 직접 수거

아름다운가게 포천점이 4월26일 포천고 학부모회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토요일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포천고 학부모회가 수집한 의류 700여점과 가전제품 및 잡화류 300여점 등 1천여점을 학부모들이 직접 판매행사를 가졌다.

포천고 학부모회는 각 학년별로 10명씩 총 30명의 학부모가 판매할 품목을 직접 수거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판매된 이익금은 학교발전 기금을 마련하고 일부 금액은 불우이웃들에게 사용 할 예정이다.

포천고 학부모회 김미애 회장은 "아름다운가게 포천점 김형숙 매니저의 권유로 행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포천고 학부모회가 수집한 의류 700여점과 가전제품 및 잡화류 300여점 등 1천여점을 학부모들이 직접 판매행사를 가졌다.

포천고 학부모회는 각 학년별로 10명씩 총 30명의 학부모가 판매할 품목을 직접 수거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판매된 이익금은 학교발전 기금을 마련하고 일부 금액은 불우이웃들에게 사용 할 예정이다.

하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함께 공부해요

위의지칙(威儀之則) ③

禮記에曰 苦有疾風迅雷甚雨 어든 則必變하여 雖夜나 必與하여 衣服冠而坐니라.

疾風(질풍) 빠르게 부는 바람,迅雷(신뢰) 심한 천둥.

예기(禮記)에 말하기를, "만약 바람이 세차게 불고, 천둥이 심하고, 폭우(暴雨)가 내리면 반드시 얼굴빛이 변하며, 비록 깊은 밤이라도 반드시 일어나서 의관(衣服)을 정제하고 앉는다.(天 하늘천 뜻) 꾸짖을건)" 하였다.

옛날에는 바람이 세차게 불고 폭우가 내리며 천둥 번개가 심하면 하늘이 성내어 경계하는 것으로 보았다.

얼굴빛을 변하는 것은 天譴(천견)을 두려워 하는 것이고, 밤중이라도 일어나서 의관을 정제하고 단정히 앉는 것은 하늘의 뜻을 두려워 하고 공경하는 것이다.(天 하늘천 뜻) 꾸짖을건)



양주승 본지 자문위원의 고문

윤중성의 국제비즈니스 미국영어



수와셈 10. (보 기) : (3)

* 3대 3이아 일 트뤼(All three.)

* (참고) 1) 준준결승 : 쿼터파이널 (Quarter final.)
2) 준 결 승 : 세미파이널 (Semi final.)
3) 결 승 : 파이널 퀴러퀴케이션 (Final qualification.)

* 여기서 '팁'을 얼마를 쥐야 할까?
하무머치 팁핑하어? (How much tipping here?)
* 적어도 10%는 주어야 합니다
유메이거버틴퍼센 앳리스트 (You may give a 10% at least.)
* '써어비스'가 좋아서 15%를 줍니다
아이어덧 어퀵틴퍼센트빌
취유어긱써어비스 (I added a 15% to the bill for your good service.)

문: 윤 중 성 (017-723-4977)colyoon@nate.com

BEST 보육프로그램 ① 들어가는 말

교사의 인성과 전문성으로 표준보육과정 진행

최근 영유아 교육은 물론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욕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관내 시립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BEST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받아 기록해 나가 고자 한다. (편집자주)

내 유년시절을 돌아봅니다. 한 상 집안은 우리 형제들의 재질거림과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지 않았지만, 우리 땅바닥에 주저앉아 막대기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고, 동그렇게 둘러앉은 가족들의 응원을 받으며 영타이를 흔들며 노래와 춤을 뽐내는 작은 예술가였습니다.

자상하셨지만 가정교육에 있어서의 엄격함이 오신 아버지께 사담으로서 살아가야 할 기본적인 도리를 배웠습니다.

형제들과 싸우며, 또 아껴주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도,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도 배려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나...사회의 구조가 바뀌면서 핵가족이 되어 형제수도 줄고, 더욱이 사회적 변화에 따라 '엄마'하고 부르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던 엄마들은 사회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너무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어 버린 지금...우리의 아이들은 어디에서 사랑과, 사랑됨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은 일상적인 양육을 포함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비롯하여,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는 유아교육기관입니다.

이 세상의 어머니가 고통 끝에 서 낳은 귀한 존재들이 인성과 배려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영양, 건강을 고려한 환경과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들과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건강한 성격을 할 것입니다.

제가 소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해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잘 것 없는 제 글이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 선정, 조직하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잘 것 없는 제 글이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 선정, 조직하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잘 것 없는 제 글이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 선정, 조직하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포천장로교회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지난 일 년 동안 그리고 올 봄을 지내면서 늘 목사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3학년 때까지는 부친에 살았는데 제가 살던 마을은 꽃이 참 많았어요. 장미꽃이 필 때면 엄마 손잡고 집에서 걸어서 백만 송이 장미원에 놀러가고 도당산 벚꽃 축제에 미술대회도 참가하고 원미산에 진달래가 빨갛게 피면 진달래 축제도 구경 가고... 꽃을 가까이에서 보며 살았는데 포천으로 이사 오니까 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난 해 봄에는 보이지 않던 꽃들이 요즘에는 여기 저기 피어서 바람에 하늘거리는 것을 보면 지난해에는 제가 낯선 곳으로 이사 와서 적응하는 라고 꽃들을 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편지를 쓰는 이유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은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참 많고 학교 가는 길도 한 길로만 다니지 않고 여기저기 다니는 데 어느 날, 포천장로교회를 끼고 가는 길로 학교에 갔습니다. 그 길은 돌아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리지요. 학교 가는 길에 교회 정문 앞에서 정원을 바라보고 너무 아



이지연 학생에게서 포천초 5년

름다워서 오랫동안 저 랫동안 저 날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색깔의 꽃들이 하늘나라 정원인 듯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웠는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금 먼 길이기도 하지만 교회 정원을 보기 위하여 꼭 그 길로 돌아서 학교에 다닙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가볼 줄 아는 목사님이시라면 목사님의 마음과 목사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포천장로교회의 정원에서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시며 사람들에게 천국을 살짝 보여 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아름다운 정원과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가꾸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교회 정원에서 한동안 꽃들을 보다가 왔는데, 교회에서 하는 공사가 빨리 끝나서 꽃들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8년 4월26일 이지연 올림

경기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무대

가산초, 마당극 콩쥐와 팥쥐 관람

경기도 2008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이 4월 29일 기산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됐다.

경기도 2008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이 4월 29일 기산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됐다.

경기도 2008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이 4월 29일 기산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됐다.

경기도 2008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이 4월 29일 기산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됐다.



경기도 2008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이 4월 29일 기산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됐다.

경기도 2008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이 4월 29일 기산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됐다.

경기도 2008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이 4월 29일 기산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됐다.

경기도 2008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이 4월 29일 기산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됐다.

경기도 2008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이 4월 29일 기산초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됐다.



김경선 편집위원의 고문

자유기고 작지만 아름다운 추억

어느 때와 다름없이 시골벽벽하게 친구들과 모여 있다가 보니 어느 새 출발 시간 다가와서 버스에 타고 몇 시간을 달려 가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려 내려서 점심을 먹었다.

그리곤 다시 출발하여 강원도 평창수원원이란 곳에 도착하고 보니 이렇게 좋은 곳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곤 다같이 강당으로 갔다. 아직은 낮고 어색해서 그런지 그냥 그랬다. 좀 있다가 선생님들의 소개가 이어졌고 그렇게 우리 만났다.

사람들은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다 한다. 하지만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던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만난 것도 인연이었다. 그렇게 우리의 2박3일의 수련회가 시작되었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나 이 질문을 하면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

아직은 내 자신을 찾는 나이가 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짐을 풀고 긴장을 풀고 첫 번째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그렇게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다.

무엇을 했고 어떤 것을 얻었는가 보다는 여기는 어떤 곳이고 무엇을 위해 왔는가에 대해 더 신중히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하루 종일 그렇게 지내다 밤이 되어 바로 잠이 들었다. 그리고 7시...우리의 두 번째 아침이 시작됐다.

어제보다 좀 더 바쁜 아침으로 우리 시골벽벽하고 밥을 먹고 난 후 이리 저리 돌아다니며 만 오천평이나 되는 수련원을 구경하기 바빴다. 그리고 얼마 후 방송이 나왔고 우리 다시 강당에 모였다. 그렇게 두 번째 프로그램 게임을 시작했다. 각 반에 나눠져, 여자팀으로 나누어 서로가 서로의 경쟁 상대가 되어서 이제 막 만난 어색함을 없애기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무언가를 깊이 얻고 느꼈다가 보다는 반 친구들과 함께 게임

도 하고 소리도 치고 웃고 떠들면서 어느 정도 친해졌구나,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하네 라는 느낌을 주었다.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수화를 배웠다. 듣지 못해 말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특별한 대화법을 배우러 들어갔을 텐데 아무 생각 없었다 그저 수화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 뿐 ..

그런데 첫 만남에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노래에 맞춘 수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내가 왜 울었는지는 지금까지도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는 놀림 받고 소외당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났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자신의 목소리가 듣고 싶진 않을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얼마,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라고 한마디 하는 걸 소원으로 생각하고 지내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니 마음이 저러왔다... 분명 듣지 못하는 것, 말하지 못하는 것, 약간 어눌한 것, 약간 부족한 것은 자신의 잘못도, 자신의 선택도 아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머리가 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생각의 깊이와 마음의 넓이가 더 큰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뿐이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손짓과 눈길도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정말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 울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두 번째 프로그램을 마쳤다. 다들 피곤했던지 게임의 기진 맥진 하여 있다가 점심시간이란 소리를 듣고 역시 웃으며 밥을 먹으려고도 저녁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까지 난 우리반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았다.

그리곤 마지막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다시 한번 모였고,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방에 들어가서 쉬면서 아이들과 이런 저런



이해영 학생에게서 포천초 5년

애기도 하고 여러가지 생각도 했다.

첫 만남에 느꼈던 것과 사뭇 다른 아이도 있었고, 내가 봤던 것보다 더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도 있었다.

그렇게 밤이 되어 취침 시간이 되었지만 발늦게 까지 이런 저런 얘기를 하였다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조금은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운전치 않게 우리반 반장의 생일로 파티를 열어 시끄럽게 놀다가 혼나기도 했다. 사실 상처 받은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었지만 그냥 지금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상황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지막 날이 되어 거의 기진 맥진한 상태로 하루 종일 지내다가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가 2박 3일 동안 지낸 것을 영상으로 보면서 눈물이 나왔다.

친구...라든가 정말 소중한 거란 걸 생각해. 내가 힘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심할 때 내가 잠이 오지 않을 때 언제나 부담 갖지 않고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늘에 감사할 일이었다.

수련원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우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모두들 많은 것을 느꼈던 것 같다. 친구의 소중한 이야기던지, 하나의 추억거리 그리고 우리가 나누었던 얘기를.

돌아와서 생각하니 앞으로 시험기간이라는 압박이 있었지만 지금 당장은 모두들 행복한 모습이었다. 한 한사람도 수련원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들 만족했고, 즐거웠다. 수화여행 혹은 졸업여행을 갔다 온 기분이었다고 했다.

우리 그렇게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왔다.

지구온난화가 봄을 아프게 한대요

이제는 봄이 성큼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다. 예쁜 꽃들이 미리 마중을 나왔는지 우리를 위해 조금씩 조금씩 피고 있다. 등꽃길에 반겨주는 목련도, 환하게 웃어주는 개나리도, 우리학교를 더욱 더 빛나게 하는 진달래도 봄의 자랑거리다.

하지만 이렇게 예쁜 꽃들을 피어나게 해주는 봄은 '지구온난화'라는 것 때문에 봄이 대한민국에 없어도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뜨거워 진다는 것이다. 현재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있다.

환경오염이 지구온난화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사람들이 환경오염에 대해 잘 모르거나,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보이는 것마다 쓰레기를 줍고, 줍고 하다보면 우리나라는 조금씩 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 서울이나 인구가 많은 지역은 다른 지역의 공기가 다르다. 그 이유는 공장 때문, 자동차의 배기가스 같은 안 좋은 공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동자가 많



권정아 학생에게서 유초 5년

을 것이고, 또 많으면 많을수록 자동차는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또 얼마나 우리 지구가 피해를 볼 것인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는 봄이란 계절이 이세상에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도 이 계기를 통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었고, 어떤 일을 가도 쓰레기 하나 썩은 쪽 줍도록 해야 되겠다.

아이에게 매를 듣지 않고 훈육하는 방법- I

부모님이 아이에게 매를 듣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올바르게 가르치려고' 그럼 매를 듣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어떠한 이유에서 건 벌을 받거나 체벌을 받게 되면 아이들은 잠시 화를 냅니다. 매를 맞았다는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부모에 대한 불만에 사로잡히게 되며 이때 아이는 부모의 말이 귀를 기울이거나 집중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본인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아이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더 큰 힘으로 강하게 누르는 것이 아닌 '상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내가 존중받고 있다

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풀어지고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벌을 서 잔뜩 화나있는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부모님은 그런 아이를 보면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하시지요. 이럴 때 나의 궁금증보다 아이의 감정을 먼저 알아주세요. '너 지금 화가 잔뜩 난 모양이구나',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아', '왜 때문에 화나 있을까?', '누가 그런 말해 보렴'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시고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말하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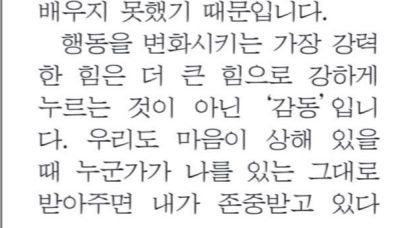
어떠한 행동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소리로 나오면서 나의 감정이 정리되고 그것이 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도에서 뛰어서

벌을 썼는데 정현이는 벌을 안 받고 나만 벌을 주셨어요', '그래 선생님께서 정현이는 벌을 세우지 않고 나만 벌을 세워주세요' '그래 아주 속상했어요. 그런데 가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엄마도 옆에 지나가는 친구를 보지 못할 때가 있어', '하지만 정현이도 네가 벌을 받고 보고 마음이 안 좋았을 거야. 그렇잖아?'

이야기 가운데 학교 규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아이는 자신이 학교규칙을 어겼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심리상담: 우리심리상담센터 031-541-0954



유정현 우리심리상담센터 책임연구원